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광주 상무 "FA컵 돌풍 기대하라"

광주 월드컵경기장서 울산 현대와 16강전 격돌 프로-아마 축구 16개팀 전국 8곳서 오늘 킥오프

무더운 한여름 축구 열기가 다시 시작된다. 2007아시아컵축구가 아쉽게 3위로 끝나고 핼 베어백이 국가대표 사령탑에서 물러나 어수선하지만 한국 축구의 토양을 지켜내려는 움직임은 계속된다.

시발점은 2007 하나은행 FA컵축구 16강전이다. 국내 모든 등록팀이 참가해 성인축구의 최고봉을 가리키는 상징성도 있는 대회다.

FA컵 축구는 1일 전국 8개 경기장에서 킥오프 한다. 광주 상무는 이날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울산 현대와 맞붙는다.

광주는 울산과의 K리그 역대전적에서 2승 3무 9패 4득점, 19실점으로 절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희망은 있다. 울산의 공격력이 고갈됐기 때

문이다. 울산의 주력 공격수는 이천수, 염기훈, 정경호 등인데, 이천수는 아시아컵에서 체력을 소진해 출전이 불투명하다. 전북에서 울산으로 이적한 염기훈은 아시아컵 대회 도중 부상으로 올 시즌을 마감했고, 정경호는 전북현대로 이적했다. 여기에 양동현마저 부상을 입었다.

반면 K리그 전반기를 일찍 마감한 광주는 지난 40여 일의 공백기 동안 집중적인 훈련으로 조직력을 극대화했다. FA컵 돌풍을 자신하는 이유다.

특히 부상선수가 없다는 게 최대 장점.

광주는 남궁도(사진), 김승용, 이진호, 여승원으로 공격진을 구성하고 강용, 김영근, 이길훈, 전광진, 이동식을 허리에 배치해 공격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FC 서울과 수원 삼성 라이벌전도 불가리다. 지난달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에 0-4로 참패해 유럽의 높은 벽을 질감한 서울은 후반기 대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패배가 오히려 약이 됐다든 세 늘 귀네슈 서울 감독은 "1군이 모두 돌아왔다. 수원과 일전은 후반기 전력을 가늠할 중대 일전"이라며 단단히 버리고 있다.

수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아시아컵 휴식기에 미국 원정을 다녀왔지만 성적은 신통치 않았다. 하지만 라인업은 더 단단해졌다. 기존 멤버들에 20세이하(U-20) 청소년 월드컵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하태균, 신영록이 합류했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원은 올해 세 차례 맞붙어 2승1패로 수원이 앞서고 있다.

아시아 최고 클럽을 꿈꾸는 두 팀 모두 내년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클럽 출전권이 걸린 FA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목표다.

한편 광주 상무는 이번 FA컵 16강전에 대해 무료입장 이벤트를 실시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 드래곤즈 브라질 용병 시몬 영입

프로 축구 전남 드래곤즈는 브라질 출신 용병 공격수 시몬(26·본명 빅토르 시모스)을 영입,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선수 등록을 했다

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76cm, 79kg의 시몬은 브라질 프로축구 1부리그 피구에렌세에서 주전 공격수로 활약해왔다. 올해 기록은 정규 리그 8경기 출전에 2골.

시몬은 오는 12일 전남 광양전용구장에서 열린 대구 FC와 후반기 홈 개막전에서 데뷔한다.

전남은 이로써 K-리그 후반기 개막을 앞두고 시몬과 미드필더 윤주일, 수비수 광태휘 등 3명을 영입하는 것으로 전력 보강을 마무리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올림픽대표팀 국내파 감독 선임"

축구협회 "대표팀 감독은 차후 다시 논의"

대한축구협회는 2007 아시아컵축구에서 우승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핼 베어백 국가대표 겸 올림픽대표팀 감독의 후임으로 국내 지도자를 선임하기로 했다.

이영무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를 열어 후임 사령탑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올림픽대표팀 감독을 국내 지도자 가운데 뽑고 국가대표팀 감독직의 경우 올 하반기에 대회가 없는 만큼 차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영무 위원장은 "오는 22일 우즈베키스탄과 올림픽 최종예선 첫 경기가 잡혀 있어

올림픽대표팀을 17일 소집해야 한다. 시간적 부담 탓에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하기는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날 기술위원회에는 이 위원장과 이상엽, 신현호, 최경식 위원이 참석했으나 박성화, 강영철 위원은 불참했다.

기술위는 1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감독 후보들을 올려놓고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외국인 지도자를 선임할 경우 한국 축구문화와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세계축구 흐름에 대해 충분한 인지가 돼 있어 올림

픽업 운영에 국내 지도자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축구협회는 이라크의 조르반 비에이라 감독과 접촉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영무 위원장은 흥명보 코치의 올림픽대표팀 감독 승격 가능성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으로 흥 코치는 한국 축구의 자산이자 미래가 촉망되는 지도자다. 오늘 흥 코치에 대해 논의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기술위는 이날 아시아컵에서 나타난 베어백호의 경기력을 분석한 결과 베어백 감독의 전술 가운데 수비 라인의 견고함 등 일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지성
"한국축구 아직은 외국인 감독 필요"

핼 베어백 축구대표팀 감독이 전적 사퇴를 선언한 가운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박지성(26·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후임 사령탑으로 외국인 감독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지성은 지난달 31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후임에 한국인 감독 얘기가 나온다'고 묻자 "우리나라에서 유럽 시스템이 정착된 것도 아니고 유럽의 경험이 부족하다"며 "아직은 외국인 감독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베어백 감독 사퇴에 대해서도 "베어백의 자질이나 능력이 충분히 대표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한국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베어백을 교체하더라

도 한국 축구를 이끌어 나갈 마땅한 지도자는 없다고 본다. 교체되지 않길 희망한다"고 했다.

박지성은 한국이 3위에 그친 아시아컵과 관련 "수비는 잘했지만 공격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았다.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대거 나갔음에도 자신있게 경기를 했다. 그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고질적인 골 결정력 부족에 대해서는 "항상 들어왔던 얘기다. 대표팀에서 기대하기 보다는 유소년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로 좋은 선수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기 때문에 한국 축구가 전체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美축구 신동 프레디 아두 포르투갈 벤피카로 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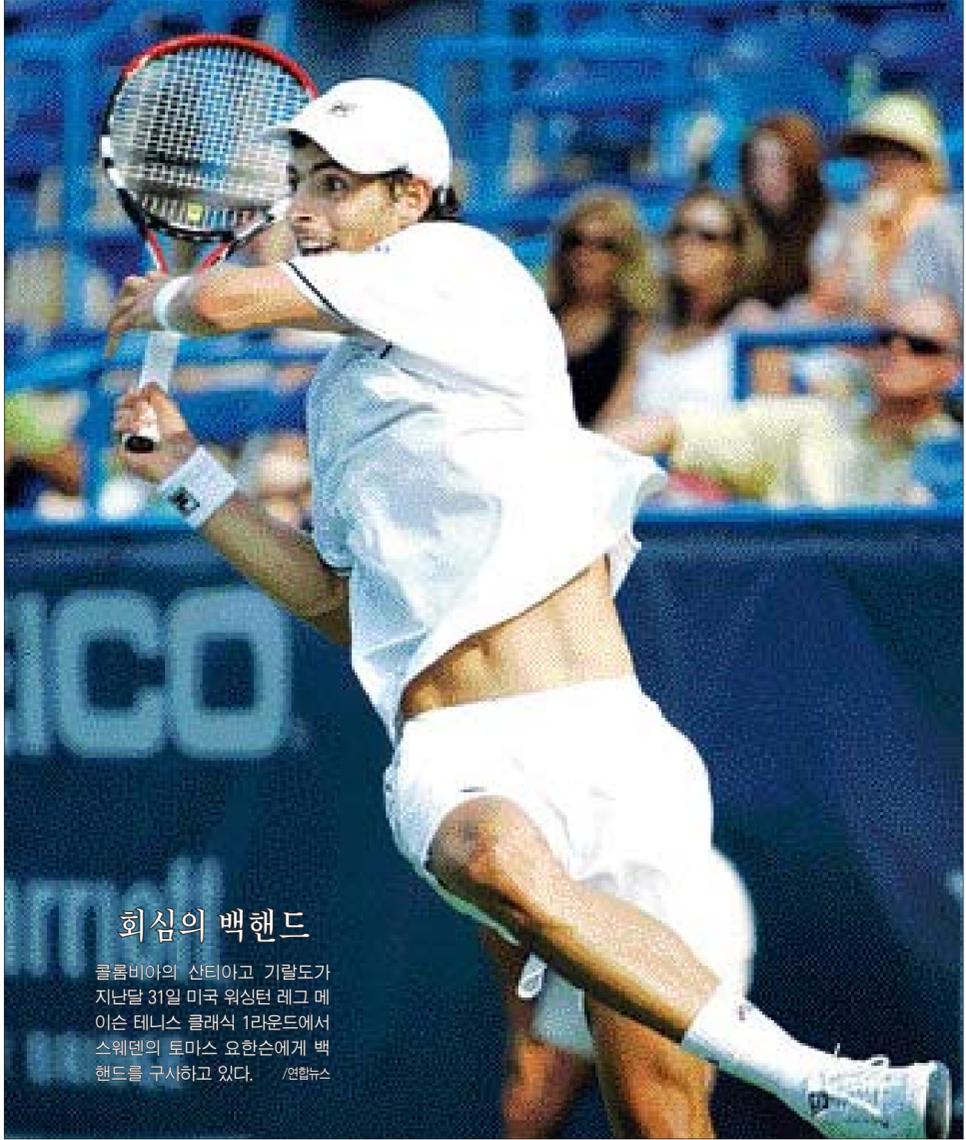
미국의 축구 신동으로 청소년 월드컵 무대에서 활약한 프레디 아두(18·레알 솔트레이크)가 유럽 축구무대를 밟게 됐다.

아두는 포르투갈 리그 벤피카와 이적료 200만달러(약 18억원)에 5년 간 계약했다고 지난달 31일(한국시간) AFP통신이 보도했다. 벤피카는 이미 이적료를 지불했고 세부 계약 조건 조정과 메디컬 테스트만 남겨 놓고 있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태어나 8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건너온 아두는 14살이던 2004년 미국프로축구(MLS) DC 유나이티드에 입단했고, 작년 미국 축구대표팀에 뽑혀 '최연소'란 수식어를 달고 다니며 일찌감치 기량을 인정받았다.

아두는 2003년 U-17 청소년 월드컵 조별리그 한국과 경기에서 3골을 몰아넣어 1-6 참패를 안기기도 했다.

아두는 잉글랜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빅리그로부터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지만 성사되지 않았고, 결국 에우제비우, 율베르투 코엘류 전 한국대표팀 감독 등을 배출한 벤피카로 동지를 옮기게 됐다.



회심의 백핸드

콜롬비아의 산티아고 기랄도가 지난달 31일 미국 워싱턴 레그 메이스 테니스 클래식 1라운드에서 스웨덴의 토마스 요한손에게 백핸드를 구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국 내일 출국

2007 아시아컵을 마친 이동국(28·미들즈브러)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준비를 위해 2일 오후 출국한다.

이동국의 에이전트인 일레븐비니지먼트 코리아의 김기훈 대표는 지난달 31일 "이동국이 이틀 뒤 출국, 소속팀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컵에 참가한 이동국은 대표팀과 함께 지난달 30일 귀국했다. 미들즈브러는 8월11일 오후 11시(한국시간) 블랙번 로버스와 홈 경기로 프리미어리그 2007~2008 시즌을 시작한다.

브라질 2014년 월드컵 유치 단독 신청

브라질이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2014년 월드컵축구대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해 단독 후보가 됐다.

히카르두 테세이라 브라질축구연맹(CBF) 회장은 이날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국제축구연맹(FIFA) 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브라질은 FIFA가 요구하고 있는 개최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AFP통신이 보도했다.

2014년 월드컵 유치전에는 당초 콜롬비아도 뛰어들었지만 유치 의사를 철회함에 따

라 브라질이 단독 후보다. FIFA는 10월 집행위원회에서 2014년 월드컵 개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FIFA는 앞서 브라질이 단독 후보라 하더라도 반드시 2014년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개최 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것임을 내비쳤다.

아무튼 브라질은 1950년 이후 64년 만에 월드컵을 개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는 2016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도 도전장을 낼 계획이다.

올림픽 티켓 놓고 외나무 다리 격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 오늘밤 한-일 8강리그 2차전

한국과 일본이 제24회 아시아남자농구선수권대회에서 피할 수 없는 한 판 승부를 펼친다.

1일 밤 8시15분 일본 도쿠시마 아스티체육관에서 열리는 8강리그 2차전에서 맞붙는 두 나라는 이 대회에 1장 걸려있는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경쟁 중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올림픽에 나가본 지 오래됐는데 한국은 1996년 애틀랜타대회

가 마지막이었고 일본은 1976년 몬트리올대회를 끝으로 올림픽 구경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두 나라는 이미 중국이 예선 탈락한 이번 대회가 올림픽 출전과 아시아 선수권대회 우승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총력을 펼치고 있어 맞대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두 나라의 국가대표가 가장 최근에 맞붙은 것은 2006 도하아시아게임 5~6위

전으로 한국이 87-76으로 이겼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일본에 강하다는 자신감이 큰 무기다. 일본 지지통신 역시 "1997년 대회 결승 이후 주요 국제대회에서 한국에 8연패를 당하고 있다"고 전하며 한국에 대한 약세를 인정했다.

한편 한국은 지난달 31일 일본 도쿠시마 아스티체육관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선수권대회 8강 결선리그 2조 1차전에서 요르단에 70-65로 승리, 4강 토너먼트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